

## 문화예술 교육방법으로서 렌즈기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ulture art education method of lens based media literacy

유기상

청운대학교

Ryu ki-sang

ChungWoon Univ.

#### 요약

SNS(Social Network Service)미디어로 회자되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소통은 미디어 접근성의 중요성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문화예술 교육안에서도 시각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구조의 미디어와 예술, 문화, IT가 결합한 컨버전스 형태의 뉴 컬처 미디어에 대한 교육적 인식을 시작하였다. 좋은 교육은 규율과 친밀성에 기반하는데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렌즈기반미디어리터러시는 창의적인 자기표현과 소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문화활동가와 교육생, 교육생의 가족 등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 참여를 확장시켜 소통의 격차를 줄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모델은 개별 사용자를 넘어 미디어 생산자, 수용자, 유통자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I. 서론

오늘날 SNS(Social Network Service)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일상과 소비주의 그리고 커뮤니티는 뒤섞이면서 구체화되고 강력해진다. 이는 우리가 직접 찍은 이미지, 일상적인 삶의 자아 재현 이미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소통 구조인 디지털 문화에서 렌즈기반 미디어에 일어난 특별한 기술적 변화를 보는 아니라, 이미지의 사유화의 힘을 둘러싸고 형성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봐야하는 것이다.<sup>1)</sup>

대표적인 렌즈기반 미디어인 스마트폰으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들의 소통 구조는 자아구축으로서의 자아 재현(self-repres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에 장치되어 있는 렌즈 앞에 서서 사진이미지가 될 만한 순간을 선택하고 근사하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젠더와 계급 외모의 코드들을 능동적으로 엮어간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진이미지 합성을 통해 미래의 기억도 만들어간다. 현대인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그들의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빠른 기술적 성장으로 유통시장과 소통문화는 매우 커져있지만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함양을 위한 리터러시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 방법으로 매우 교육적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렌즈기반 미디어의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문화예술 교육의 실천적 인식이 필요하다.

## II. 본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서 블로그 나 클럽에 올려져 전송되고 소통되는 이미지들은 대상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며 관계의 제시이다. 렌즈기반 미디어의 사진적 행위를 시 지각(視 知覺) 관점에서 “보기”인 시각과 “인식하기”인 지각으로 나누어 보자면, 디지털 시대의 ‘보기’와 ‘인식하기’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와 행위는 어떤 행위에 의해 생산된 이미지 일 뿐만 아니라 ‘본다는 행동’은 하나의 선택된 시각적 판단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심적 구조를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sup>2)</sup> 렌즈기반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론적 지점인 것이다.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렌즈기반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적 상호작용성은 일방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이 아닌 다양성과 소통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렌즈기반 미디어의 이미지 생산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사진적 행위는 한순간을 표시한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대체로 인간의 결정과 선택에 속한 문화적인 제스처들은 셔터를 누르는 최후의 순간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 각도, 시간, 주제들이 있다. 촬영 후 사진이미지는 편집, 개인 홈페이지, 클럽 등의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전파된다.

만약 무엇이 사용자의 렌즈기반 미디어를 사용한 이미지의 독창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생산물 이상으로 반드시 그 과정을 이해해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렌즈기반미디어의 기술적 접근성을 이해 할 수 있는 리터러시

1) 마틴 리스터, 「디지털 시대의 사진 이미지」, 우선아(역), 시각과 언어, 2000, p.51.

2) Thompson, j. b.(1990)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가 필요한 기술적 지점이다. 렌즈기반 미디어리터러시의 문화예술 교육의 활용적인 관점이 필연적이다.<sup>3)</sup> 왜냐하면 대상에서 반사하는 빛을 CCD(Charge Coupled Device)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정보값의 근본적인 특성을 수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중재하지도 또 중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미디어의 자동성이라 부르며 디지털에서 더욱 사용자가 편하게 미디어를 다룰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모든 렌즈기반미디어의 이미지들은 시간적으로 대상보다 언제나 늦게 재현한다. 이러한 시간적 편차가 디지털 환경에서 무척 빠르게 진행 된다 하여도 시간적 편차는 존속한다. 저장되어 지는 순간과 사진 이미지로 보여 지는 여러 가지의 소통 구조 관계에서 이러한 편차의 차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가 이미지에 주관적인 의미를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 구조 안에서 지각되고 사유하고 있는 시각적 제안을 스마트폰, 아이패드, IPTV, 컴퓨터를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 가는 이미지를 증거로서의 자료가 아닌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현상에 자신의 생각을 언어적 기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 III. 결론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시각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한 매체 소통구조를 기반으로 미디어와 예술, 문화, IT가 결합한 컨버전스 형태의 뉴 컬처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다. 서울 유명 백화점 옥상에 제프쿱스의 300억 짜리 작품이 들어오고 그 기념으로 아트마케팅을 하는 경영전략을 보면서 창의적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아트마케팅이 구체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의 고정된 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상호소통을 토대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재해석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미디어 접근성으로부터 미래의 생산자이자 현재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문화예술 교육이 매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사진미디어는 뉴미디어의 기본이 되는 언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대상에 대한 인식체계에 대한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문학과 디지털미디어가 컨버전스하는 시대에 사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속성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기계적 기반을 둔 뉴미디어의 접근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미디어이다.

이러한 면에서 렌즈기반미디어는 뉴미디어로서 통합교육의 커뮤니케이션 함양과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미디어이다. 이는 교육적인 역량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적극적 사회 참여를 확장시켜 소통의 격차를 줄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이렇게 형성된 모델은 개별 사용자를 넘어 미디어 생산자, 수용자, 유통자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사회적 요구는 창의적이고 사고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에 철학적 기반을 둔 「연계성」과 「다양성」, 「선택」과 「집중」이라는 렌즈기반 미디어리터러시의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마틴 리스터, 「디지털 시대의 사진 이미지」, 우선아(역), 시각과 언어, 2000, p.51.
- [2] Thompson, j. b.(1990)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 [3] 필립 뒤바, 「사진적 행위」, 이경률(역), 마실가, 2004, P85

3) 필립 뒤바, 「사진적 행위」, 이경률(역), 마실가, 2004, P85